웨스 스태포드(Wess Stafford) 총재 인터뷰 영상

1993년도 컴패션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컴패션은 1952년 한국에서 시작하였고, 따라서 1993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의 보육원 사역을 통해 고아들을 섬겼습니다.

컴패션 양육을 받았던 어린이들은 1993년 당시 대부분 40대, 50대가 된 상황이었고, 제가 1993년에 컴패션 대표가 되었는데 그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정말 극적으로 달라져서 스완슨 목사님이 도착했을 당시 전쟁으로 인한 가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가장 큰일 중 하나는,

1952년 컴패션이 한국 보육원에 보내는 돈은 그들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가 보내는 비용이 아주 작은 부분 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보육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따라서 전 세계가 이전에 전쟁을 겪었던 한국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역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갔을 때 한강에는 다리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20여 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건물 역시 놀라웠고, 서울은 정말 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아주 강한 경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 8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매우 놀랍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 방에서 창 밖을 내다보았는데, 빨간색의 십자가가 보여 세어보았더니 25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교회였습니다. '와! 이곳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했죠.

저는 교회가 많은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몇몇 교회를 방문하면서 각 교회가 성장했을 뿐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1/4 이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크고 강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직 미국 만이 한국보다 많은 수를 파송했지만, 한국도 이미 전 세계로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큰 교회 중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로비가 아주 거대했는데 대형 쌀 자루들이 놓여있었습니다.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쌀로 자기 사람들을 스스로 돌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목사님이 웃으며 말하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한국 사람들이 모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저는 우리 이사회에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너무 달라졌습니다. 경제, 인프라, 교회, 사람들의 열정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사회는 우리 돈이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제 사명을 완수했음을 선포해야 할 시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축하하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에티오피아는 마침 공산주의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기근에서도 막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컴패션이 들어오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치하 하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들의 중요성과 컴패션에 관해 설명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컴패션이 바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직을 시작한 첫 해에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승리이고,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철수하고, 같은 재정과 노력으로 에티오피아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1993년 서울에서 아주 성대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사님들과 컴패션 졸업생들을 초대했고, 이들은 컴패션이 키운 전쟁 고아들이었지만 이제는 40대, 50대의 성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가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 보육원 원장님들과 가족들, 목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김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40년간 행하신 그 선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은 극동방송에 양도했습니다. 빌리 킴(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했었고, 스완슨 목사님의 좋은 친구이기도 했기에 컴패션 빌딩을 양도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가는 즈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국의 성공을 기념하고,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축하했습니다.

그 날 행사 중 목사님들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 주셨던 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와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없었고, 정부는 전쟁 한 가운데 있었고, 경제는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때 스완슨 목사님이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었죠.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스태포드 박사님. 너무 고맙지만 이제 겨우 반쪽의 스토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만 기록된 반쪽 자리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돌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전 세계 아이들을 돕게 해 주십시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눠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는 대로, 수혜국이 아니라 후원국으로, 주는 나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1993년이었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후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를 채용해야 했고, 그래서 서 대표님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축복이었는지요! 여전히 변함이 없지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부하는지,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서 대표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을 갖고 생각하십시오.

그는 한국에서 멋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컴패션에 관해 이야기하고, 매우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가 1993년 한국에서 철수할 때 축하 연회를 가졌던 것과 같이 2004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축하연 시간이 아침 7시였습니다. 미국 크리스천은 절대 축하연을 하지 않는 시간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들 4시면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니까요!

아침 7시에 목사님들, 선교회 간부들, 컴패션 졸업생들, 옛날 보육원 원장님들을 비롯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컴패션이 무엇이고, 뭘 알아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컴패션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종이 되기 위한 사역이고, 어린이를 섬기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컴패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다 압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모두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장했고 우리는 50대, 60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업가입니다. 고층건물이 놀랍다고요?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역의 간부들이고 이 큰 교회들의 목사들입니다. 우린 컴패션을 알아요! 웰컴 홈! 다시 돌아와 줘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 사람들은 컴패션 사역을 빠르게 이해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을 돕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실과 직원들을 보내 주셨고, 교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컴패션 직원들과 서 대표님이 컴패션에 대해 설명하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 예술가, 음악가들이 우리 사역에 동참하면서 다른 어떤 컴패션 후원국 보다 한국 사역이 엄청나게 빠르고, 단단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한국 후원자들은 우리 모든 후원자님들 중 가장 훌륭합니다.

제가 케냐, 과테말라 같은 나라의 어린이센터로 여행할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후원자님한테 편지를 받고 있니?"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달려가 편지로 가득 찬 작은 봉지를 갖고 옵니다. 어린이들에게 편지는 보물 같습니다.

"후원자님이 어느 나라 분이니?"

"한국이요!"

"내가 편지를 좀 읽어봐도 되겠니?"

편지 몇 개를 열어봤는데, 한국 크리스천 후원자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나라도 가난했었어. 전쟁도 겪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너도 바뀔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마. 너가 그린 너의 집을 봤어. 나도 그런 집에 살았었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너를 돌보시는 분이야. 너 역시 언젠가 나처럼 다른 사람의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저는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가난이 뭔지 압니다. 고통이 뭔지 압니다. 고생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축복 받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어린이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한국 후원자들 같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역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고 축하를 끝낸 시점에, 국제컴패션에서 45년의 사역, 대표로서 20년을 마치고 보니,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넉넉히 주는 나라로 완

전히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기쁨입니다.

한국이 후원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전 세계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한국의 목회자 그룹이 미국의 국제컴패션을 방문했습니다.

과테말라 등 다른 나라를 가면서 여러 번 국제컴패션을 방문했고 우리 직원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도 많이 살고 있지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데요.

그중 정기적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전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과거에 후원 어린이였습니다.

컴패션 본부에서 그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들이 후원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러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겪은 일을 간증하고, 찬양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후원자들은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완슨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아니라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들 마음속 깊은 관대함을 축하할 수 있었던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얘기를 하면 제 얼굴에 자동적으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 축복입니다.

산호세에서 만난 여자분에 대해 말해도 될까요?

대표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컴패션 역사와 한국의 전쟁,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어린이들, 특히 현관 앞에서 추위에 굶주리던 어린이들 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죠.

"그 때 마음에 컴패션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 어린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그곳에서 정말 영웅적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그 밖에 수많은 곳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산호세의 한 큰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통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테이블이 있었고,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는 컴패션 어린이들의 후원 패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는데, 멋진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하이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 입은, 예쁜 얼굴의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55세 정도의 한국 여자로 보였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스태포드 박사님, 오늘 박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모두 사실이 틀림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중 한 아이였어요. 그 보육원, 그 문 앞에 있는 아이였어요. 기억나요. 저는 서너 살쯤 된 작은 아이였고, 서울의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때 어떤 큰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땐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 알았어요. 바로 에버렛 스완슨이었어요!

그분이 몸을 숙여서 저를 안아 올려서 그분의 재킷 안에 품어 주셨어요. 제가 따뜻해지도록이요! 보육원에 데려가 저를 소개했어요. 사랑해 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라고요!

미국 가족에 입양되기 전 7살까지 그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게 됐어요. 여기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이 곳 실리콘 밸리의 아주 큰 컴퓨터 회사의 중역이 되었어요. 그날 일을 다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제 심장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졌어요. 오늘이 제가 돌려줄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

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함께 테이블이 있는 밖으로 나갔어요.

"컴패션이 한국을 떠나 에티오피아로 갔다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에티오피아 여자 아이를 후원할게요."

그렇게 또 한 명의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추운 거리,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보육원, 한국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준 강한 의지의 여인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람의 완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 사역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이 한국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제 인생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더 이상 질병, 슬픔, 사망,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만여 명의 한국 후원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수 없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선 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국제컴패션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사랑스럽고 힘있게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림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걸어 다니면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70년간의 놀라운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